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영광군의 새로운 돌봄 모델은?

키즈카페·긴급돌봄부터 공동육아·아빠휴직 장려까지

출산율 1위 뒤엔 생활밀착형 '가정복지의 힘'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한 시설 홍보를 넘어, 돌봄 인프라와 육아 친화 정책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영광군의 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영광군이 전국 최고 출산율을 6년째 지켜내는 저력은 돌봄의 일상화, 생활 속 복지에 답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실제로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1.7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의 두 배를 넘는다. 그 배경엔 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있다. 출생 기본수당, 육아용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다둥이 가정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한 것이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9월 본격 운영을 앞둔 '우리 아이 긴급·일시돌봄터'가 있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3세~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같은 시기 이전 예정인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놀이문화, 공동체 기반 육아를 지원한다.

또한, 영광군은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을 본격화했다. 지난달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열고, 접근성·유형·수요를 여러 모로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혹서기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을 통해 보호자와 아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용역을 통해 소규모 실내 놀이터부터 테마파크형까지 최적의 모델을 도출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도 주목된다. 어린이집연합회, 청년센터, 교육지원청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설문조사, 원탁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브랜드를 구체화하고 있다.

군의 돌봄 정책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처럼 가족 내 역할 균형까지 고려한다. 육아휴직 중인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이 지원은 가사·돌봄의 공동책임을 강화하며, 정서적 유대와 지역 출산율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영광군의 생활밀착형 가정복지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지역 전체의 미래를 설계한다. '지속가능성'이 중요 과제로 꼽힌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현장 중심 피드백, 주민참여형 운영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고령자·한부모·위기가정 등 돌봄의 사각지대까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영광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광형 키즈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돌봄 인프라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돌봄과 놀이, 지역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공모 선정

2GW 규모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착수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단지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4억 5천만 원과 군비 25억 원 등 총 사업비 3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7년까지 최대 2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이 협력해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단지개발을 목표로,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 참여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35억 원, 국비)'과 연계해 세계적인 해상풍력 개발 체계인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국내 첫 시범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도 방식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에 있어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고흥군은 지난해 3월 '4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년간 50회 이상의 해상풍력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 확보에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고흥은 전남 동부 해역의 중심에 위치해 주요 해상풍력단지와 송전망 대부분이 경유하는 남해안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에 해당한다"며 "타 시군과도 협력을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광역권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함평군, 엄다면·대동면에 75억 원 투입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 2곳 동시 선정

전남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함평군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조성공모사업'에 엄다면과 대동면이 선정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주민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군은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와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사전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로 추진되는 엄다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엄다리 일원에 면사무소를 포함한 복합 다목적센터를 신축하고, 주민 대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해 총 55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2단계 대동면 사업은 주민 복지와 문화 향유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건강·복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한마당 등 주민 참여형 사업을 중심으로 총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함평군 농촌협약(2023~2027년, 총 573억 원)과는 별도로 선정된 사업으로, 군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구축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구례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남 구례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4,900만원(10,133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도시의 일상 여행하다, '순천일기 참가자 모집'

순천에서 7~10일 살아보기, 하루 최대 10만원 경비 지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의 일상과 감성을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2025 순천일기」 참가자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천일기'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여행자가 일정 기간 순천에 머물며 지역의 숨은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7~10일간 순천에 체류하면서 관광지, 전통시장,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자원을 경험하고, SNS, 블로그, 영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그 여정을 소개하게 된다.

올해 프로그램은 '순천마을스테이' 사업과 연계하여, 참가자가 마을호스트로 선정된 숙소에 머무르며 해당 숙소에서 운영하는 로컬 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 투어 등에 참여하도록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순천의 일상과 문화를 더욱 밀도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전라남도 외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15팀 이내(약 30명 규모)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순천 대표 관광지 및 축제 참여 ▲전통시장 방문 ▲마을호스트 프로그램 참여 ▲콘텐츠 업로드 등 지정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참가 신청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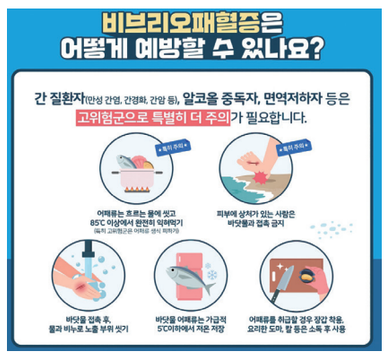
시는 참가자에게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실비성 경비를 1인당 1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관광과(061-749-58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무안군,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간 질환자·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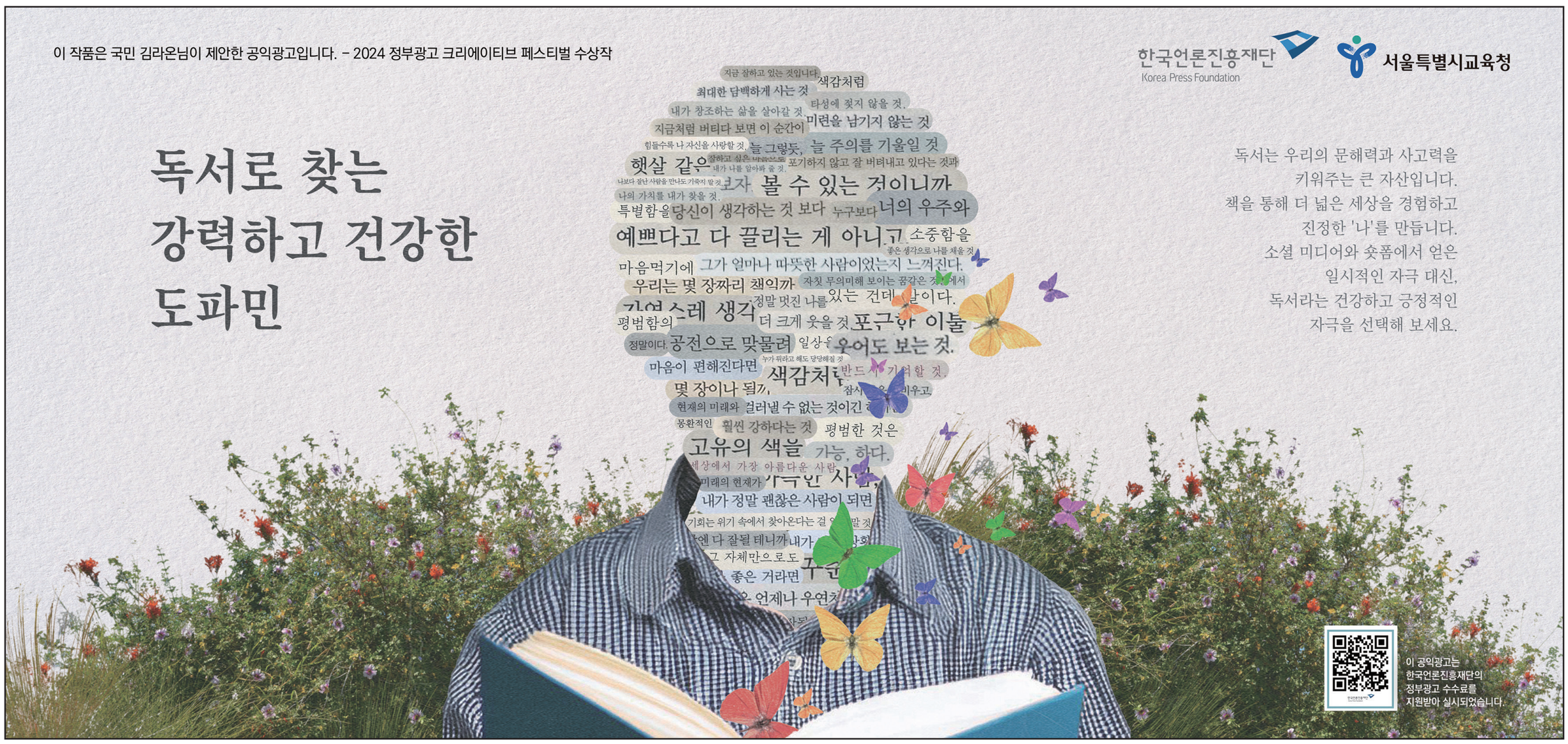
무안군(군수 김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국내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패혈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패혈증이다. 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 등을 통해 감염되며,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

감염 경로는 주로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가 있는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발생한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4시간 이내에 다리 부위에 발진, 부종, 출혈성 물집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기 ▲어패류는 5℃ 이하에서 저온 보관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피하기 ▲어패류 손질 시 장갑 착용, 조리기구는 소독 후 사용 ▲어패류 세척 시 해수 대신 수돗물 사용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라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 섭취와 바닷물 접촉을 주의하고, 설사나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무안군 제공